



**KDVA and KUSAF Message**  
**75<sup>th</sup>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June 2025**

한국전쟁 발발 75 주년에 즈음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공동메시지  
2025 년 6 월

Seventy-five years ago, on June 25, 1950, the Korean War began when North Korean forces crossed the 38<sup>th</sup> parallel and launched an unprovoked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ct of aggression marked the start of a brutal war that would take the lives of millions and forever alter the course of Korean and American history.

75 년 전인 1950 년 6 월 25 일, 북한군이 38 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불법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했습니다. 이 침략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든 참혹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More than 1.8 million Americans and 2.5 million South Koreans answered the call to defend freedom during the Korean War. Over 36,000 Americans and 137,000 South Korean troops lost their lives, and countless others returned home carrying the physical and emotional scars of war.

한국전쟁 당시, 180 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과 250 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 수호의 사명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3 만 6 천여 명의 미군 장병과 13 만 7 천여 명의 한국군 장병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으며, 수많은 이들이 전쟁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귀환하였습니다.

On this solemn anniversary,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KUSAF) and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join together to honor the courage, sacrifice, and legacy of these brave Veterans and their Families.

이 엄숙한 기념일을 맞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함께 힘을 모아, 이 용감한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고귀한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We remember the fierce battles fought at places like the Pusan Perimeter, Incheon, the Chosin Reservoir, and Heartbreak Ridge. We remember the Families who waited, prayed, and endured. And we remember the enduring values of liberty, democracy, and partnership that were defend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ill define the ROK-U.S. Alliance today.

우리는 부산 교두보,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그리고 단장의 능선 등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들을 기억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로 견뎌낸 가족들의 숭고한 희생도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켜낸, 그리고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d enduring military and diplomatic partnerships in the world. This special bond is a living tribute to the Veterans who fought side by side and a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shared prosperity, and enduring friendships.

1953 년 7 월 27 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외교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는 함께 싸운 참전용사들에 대한 불멸의 찬사이자, 지역 안보와 공동 번영,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을 향한 굳건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At this 75-year mark, KDVA and KUSAF are faithfully carrying forward the legacy of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through a wide range of programs and initiatives: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한국전쟁 발발 75 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남긴 고귀한 유산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 Honoring Veterans: Supporting commemorations 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and War Memorial of Korea as well as ensuring Veterans are remembered through events like the KDVA Korea Chapter's Education Seminars with U.S. Forces Korea and Meet & Greets at KDVA's six U.S. chapter locations.
- 참전용사 추모 및 예우: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세미나, 그리고 미국 내 6 개 챕터에서 열리는 만남 및 교류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 Telling Their Stories: Documenting and sharing the stories of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through public outreach and educational materials like the special KDVA Journal and KUSAF Newsletter dedicated to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 all captured in the KDVA Digital Library and KUSAF Homepage.
- 헌신의 이야기 공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와 주한미군전우회 특별 저널 등의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 모든 자료는 한미동맹재단 홈페이지와 주한미군전우회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Inspiring the Future: Connecting generations through programs like KDVA Campus Clubs and intergenerational mentorship in the KUSAF U-SPECK Program, KUSAF Korean War Essay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KDVA Internship Program.
- 세대를 잇는 공감: 주한미군전우회 캠퍼스 클럽, 한미동맹재단 U-SPECK 프로그램,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전쟁 에세이 컨테스트 등은 세대 간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참전용사들의 정신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nhancing the Alliance: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leadership dialogues, think tank partnerships, senior leader visits, and bilateral engagements.
- 동맹 강화: 리더십 대화, 싱크탱크 파트너십, 고위 지도자 방문, 그리고 양자 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The ROK-U.S. Alliance, built upon the sacrifices of war and our veterans, has endured for over 70 years. During this time, approximately 3.3 million U.S. troops have served in Korea, helping to deter war and contributing to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c progress. Even in times of peace, 103 lives have been lost due to North Korea's continued acts of host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so shed blood together in Vietnam, Afghanistan, and Iraq, standing



side by side in defense of shared values. Through these shared sacrifices and unwavering commitment, the ROK-U.S. Alliance remains strong to this day.

이러한 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지난 70 여 년간 약 330 만 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며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로 인해 103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도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we mark this historic milestone, KUSAF and KDVA reaffirm our shared efforts to remember and support our Veterans, to educate future genera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Korean War, and to strengthen the bonds between our two nations. We hope this meaningful day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the people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flect on the solemn truth that "freedom is not free," t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to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Please join us in this noble work (membership is always free!) at KDVA.vet.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하며,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지원하며, 미래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리고, 양국 간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한미 양국 국민 모두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숭고한 교훈을 되새기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전우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 고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함께해요 한미동맹!

Robert B. "Abe" Abrams  
General, U.S. Army (Retired)  
President, KDVA  
로버트 B. "에이브" 에이브럼스

미국 육군 대장 (예비역)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Leem Ho Young  
General, ROK Army (Retired)  
President, KUSAF  
임호영

대한민국 육군 대장 (예비역)

한미동맹재단 회장